

# 대학생의 가치의식

朴 容 憲

(서울대학교 교육학)

## .....〈目次〉.....

1. 序 : 分析의 觀點과 方法
2. 分析과 診斷
  - (1) 政治的 價值意識
  - (2) 經濟的 價值意識
  - (3) 社會的 價值意識
  - (4) 一般的 價值意識
3. 綜合評價와 課題

## 1. 序 : 分析의 觀點과 方法

大學生이라는 특수 집단이 갖는 價值意識의 变화와 전망을 概觀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期待하는 가치관을 제시하여 그같은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課題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本 小主題에 부과된 요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수반되는 일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기서 시도하려는 작업에 制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밝히면서 여기서 分析하고자 하는 觀點과 範圍, 그리고 方法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大學生 價值意識의 变화와 전망을 개관하고자 함에 수반되는 어려움이란 價值觀의 概念에 대한 다양한 定義와 分類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과 그밖에 가치의식의 变化를 分析하기 위한 時期區分의 문제, 국민 전반에支配的인 가치의식과 대학생에 국한된 가치의식의 區分과 비교 문제, 청소년 시기에만 一時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성향과 비교적 지속적인 가치성향과의 구분과 비교 문제, 그리고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先行研究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標準의 代表, 그리고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先行研究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標準의 代表,

表性問題등이 體系的인 分析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도 가장 큰 難題는 가치성향의 분류 문제이다. 大學生의 價值觀에 대한 몇편의 先行研究들이 각기 다른 觀點에서 가치관을 定義하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를 代表的인 것으로 선정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어느 研究도 같은 기준에 의한 분류의 가치관을 時期를 달리하여 되풀이 실시된 것이 없어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같은 기준과 분류에 따라 分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게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도하고자 하는 分析의 觀點에 따라 가치관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定義를 내리거나 先行研究들이 시도한 다양한 가치관의 분류를 종합해서 再體系化할 수도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本稿에 요청한 취지를 최소한도로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몇가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같은 조치는 여기서 시도하려고 分析의 觀點과 方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첫째 조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價值觀에 대한 새로운 定義와 分類를 시도하지 않고 先行研究의 것에 따르되 비교적 최근의 研究에서 시도한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최근의 大學生에 支配的인 價值意識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결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의 분류와 유사한 가치 항목을 그 전의 研究에서 찾아 그 변화과정을 추적 개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 연구가 시도한 가치관의 분류란 政治·經濟·社會家庭·道德·倫理 등 주로 生活領域別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先行研究들이 분류한 모든 범주별로 가치의식을 概觀分析하지 못하며 편의상家庭과 道德·倫理의 범주를 社會領域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政治·經濟·社會의 세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들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一般 價值意識」으로 따로 취급하기로 한다. 예컨대 價值 德目別(예: 自由, 平等, 幸福, 人格, 教養 등)로 분류 조사한 연구 결과들도 가능한 한 생활 영역별 분류에 포함시키되 이들 분류에 포함될 수 없으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치의식을 「一般的 價值意識」으로 따로 분류해서 分析하기로 한다.

두번째의 조치는 앞서 분류한 생활 영역별 가치의식에 대한 一般的인 傾向을 개관하고자 하는 점이다.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관한 調査研究들은 모두 設問紙 方法을 사용한 것이며 설정한 각 問題에 대해 贊反을 물어 그

反對傾向을 百分率로 표시하거나 그 贊反을 5段階로 나누어 점수화하여 原點數의 평균으로 표시하여 그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 肯定·否定의 정도를 분석·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각 研究들이 사용한 設問紙의 問項 陳述이 각양각색이어서 原資料를 그대로 인용하여 전·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각 문항에 대한 反對傾向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건 原點數의 평균으로 표시한 것이건 간에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서 가치의식의 一般化傾向내지 肯定·否定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原資料를 인용하게도 될 것이나 이를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유추하게 되는一般的傾向과 肯定·否定의 程度를 판단함에 불가피하게 작용하는 主觀的 解釋은 그것이 「주관적인 해석」임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세번째의 조치는 時期區分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활용하게되는 研究가 실시된 時期에 따라 크게 60年代, 70年代, 80年代로 區分하게 되나 이같은 구분도 편의상의 것이며 각 時期別로 가치의식의 변화 정도를 분명히 分析하지 못하며一般的인 變化 傾向만을 概觀하고자 하는 점이다. 理想적으로는 과거 40年間에 걸쳐 정치·경제·사회 등에 큰 變動이 있었던 시기별로 分류하여 가치의식의 변화를 分析해야 할 것이나 50年代 以前에 실시된 研究를 찾아 볼 수 없고 그 以後의 경우도 각기 다른 觀點과 分類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된 몇편의 研究만을 수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社會變動期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있는 시기구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80年代의 大學生의 價値意識을 중점적으로 分析하면서 그 가치의식의 변화를 60年代와 70年代의 것과 비교하여 개관하는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 利用하게 될 大學生의 價値意識에 관한 調查研究는 60年代 것이 4편, 70年代 것이 11편, 80年代의 것이 4편으로 모두 19편이다(별표참조). 이들 年代 區分 중 60年代와 70年代의 것은 政治·經濟·社會등에 걸친 큰 변동이 있었던 時期로서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學生만을 대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한 최초의 것으로 꼽을 수 있는 洪承稷의 研究는 5·16 革命(61) 직후에 예비조사를 거쳐 62년에 실시된 것이며 63年度에 실시된 金泰吉의 研究도 그 時期에 포함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72~3年度의 黃應淵의 研究와 72年度의 李珪範 研究, 73年度의 朴容憲 研究는 維新體制 직후에 실시된 것으로 정치적 변동기의 가치의식의 변화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 이후 70年代末까지 실시된 몇편의 研究는 高度의 經濟成長이 이루어

지게된 시기의 가치의식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70年代의 것은 두 時期로 區分하여 좋을 것이다. 80年代에 포함된 4편의 研究는 第5共和國 出帆以後에 실시된 것으로 현재 大學에 在學中인 학생의 가치의식을 진단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가치의식의 形成·背景을 분석하거나 논의하지 않으며 다만 여기서 활용하게 될 年代別 研究의 의미를 지적했을 때이다.

이러한 時期區分에도 불구하고 각時期마다의 특징적 가치의식을 별도로 分析하거나 그 변화과정을 60年代부터 시작하여 分析하지 않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研究結果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면서 60年代와 70年代의 것과 비교하는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조치는 本稿의 제시 방법에 관한 점이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가치관의 분류에 따라 現在에 支配的인一般的 價值意識을 概觀하면서 과거의 경향과 비교하여 그 변화과정을 分析하기로 한다. 이러한 分析過程에서는 되도록이면 原資料에 충실하여 主觀的인 해석은 삼가하도록 한다. 끝으로 앞서 分析한 바의一般的인 경향을 綜合하고 다소 主觀的인 해석과 評價를 하면서 大學生에 期待하는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그 같은 가치의식의 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研究와 教育의 課題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 II. 分析과 診斷

大學生 價值意識의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현재적 양상을 分析하며 그 전망을 診斷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의미의 分析的 概念模型 내지 분석의 틀을 設定해야 할 것이나 序文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制限으로 그같은 작업을 시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先行研究 들이 시도한 바 있고 또한 최근의 연구가 시도한 가치관의 범주 분류에 따라 政治·經濟·社會·家庭·道德·倫理 등 생활 영역별로 가치의식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의 각 범주에 포함되는 가치 성향도 다양하고 실제로 여러 研究들이 다양한 항목과 問項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引用可能한 연구결과에 따라 小分類項目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 예를 들면 政治領域에서는 國家

와 民族理念, 體制, 制度(政府, 政黨等), 能率, 參與, 統一, 安保, 指導者, 外交, 對外國觀等이 포함되어, 經濟領域에는 制度, 政策, 職業, 勞使關係, 經濟生活一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社會領域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家庭과 道德, 倫理를 포함해서 계층, 이동, 傳統, 外來, 人間關係, 秩序, 法律, 統制 등이 취급된다. 그리고 이상의 生活領域別 分類에 포함되지 않는 基本的 價值(人生觀, 人格, 幸福, 自由, 平等, 保守, 改革等)들은 「一般的 價值意識」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 (1) 政治的 價值意識

政治領域의 가치의식에 관한 調查研究들은 앞서 예시한 바와같이 國家, 民族, 國가이념 내지 정치이념, 民主主義, 정치체제, 제도, 정치能률, 참여, 통일, 안보, 外交,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理解, 認識, 관심, 평가, 느낌, 기대, 희망, 의지등 다양한 의식성향을 조사하고 있으나 연구의 관심은 주로 國家, 理念, 體制, 參與, 統一, 安保등에 모여지고 있다.

國家一般에 대해서는 60年代初와 80年代의 연구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70年代의 연구들에서는 자주 취급하고 있다. 여러 研究들은 國家觀내지 愛國을 보다 구체적으로 國家優先, 國가에의 기여, 一體感, 國토·국기·國家에 대한 애착, 歷史·民族·文化에 대한 긍지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結果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에 대해 비교적 높은 肯定的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평균 60여 퍼센트의 학생들이肯定的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의 긍지와 國家를 위한 기여희망: 85.2%~86.2% (金·79), 一體感: 65.7%, 國家優先: 66.3% 祖國愛: 72.2% (朴·80-1)등에서 높은肯定的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國家理念에 대한 이해, 평가, 지지 성향은 아주 낮은 편이며(28.60% : 朴·80-1), 앞서 제시한 모든項目에 대한肯定度 역시 全體國民과 大學以下의 각급학교 학생의肯定度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한 희생각오에 대해서도 42% (李·77), 44.7% (金·79)정도의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大學生과 같은 나이의 勤勞青年과 無職青年의肯定的反應(71.7%~75.4%)보다 대단히 낮은 것이며 美國(68%), 印度(79%), 菲律賓(89%)보다도 낮은 것으로 주목을 끌게 한다. (金·79)

國家理念 内지 政治理念에 대한 研究에서는 民主主義와 民族主義 대한 이

해, 평가, 지지 등의 의식성향을 파악하려한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民主主義의 相對性認識 내지 西歐式 民主主義에 대한 평가 문제와 民主主義의 價值認識등에 대해서 여러편의 조사 연구들이 취급하고 있어 그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60年代初의 경우 대학생의 38%정도가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30%의 학생은 西歐式 民主主義도 한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洪·63, 70年代初까지도 그와 같은 反應이 지속되고 있었으나(2. 18 : 黃·74) 70年代 중반이후부터는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63.3% : 金·76, 68·7% : 朴·80-1) 최근에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77.76% : 宋·84) 그러나 70年代에 강조되었던 韓國的 民主主義에 대한 肯定度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54% : 朴·80-1) 그리고 民主主義 價值認識에서도 60年代初의 경우 「近代化」를 위해서가 第1位로 지적되었나(洪·63) 60年代 중반에와서는 「自由」, 70年代에 들어와서는 自由와 平等보다 「人間價值의 존중」(朴·74)과 「人權」(金·76)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國家理念 내지 政治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 사상과 이념보다 民族을 優先하고 (3.52 : 黃·74), 민족적 긍지 (61%~64%), 民族主體性(65%) 民族中興(90% : 朴·80-1), 그리고 앞서 개관한 民主主義의 相對的 受容등에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民族主義의 性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政府, 國會, 政治擔當者등에 대한 信賴度는 계속 낮은 편이며 그정도는 최근에 와서 더욱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도자에 대해서 60年代 初期에 肯定的 反應이 17.6%(金·64)정도였던 것이 70年代初에 1.73(黃·74), 70年代 중반기에는 15~6%(洪·77), 최근에와서는 13%(朴·80-1) 등으로 信賴의 정도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國會에 대해서 이와 유사하며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肯 : 11%)이며 政黨의 國民意思反映度에 대해서는 3% 정도만이 肯定하고 있는 편이다(朴·80-1).

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研究들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게된 영역은 學生의 政治的 關心과 參與의 문제이다. 여러편의 研究結果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關心度와 參與意思 내지 參與要求度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분명하다. 政治的 無關心度가 60年代에는 30%에 달했으나(朴·70) 70年代末

에와서는 7%(朴·80-1)에 불과하다. 그리고 政治的 參與에 대해서는 60年代初에 15%가 적극적 참여를 주장한 바 있고(洪·63), 다른 연구에서는 社會參與 95.4%, 文化參與 79.9%임에 反하여 政治參與에는 19%정도만이 찬성하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鄭·65). 그리고 60年代末의 경우 정치참여 주장이 65%(朴·70), 70年代末의 경우 69%(朴·80-1), 최근의 경우 72.2%(宋·84)로서 참여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나 폭력행사를 지지하는 성향은 낮은 편이며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학생도 60%정도나 되고 있다(宋·84). 이러한 평가와 아울러 정치 발전에 학생이 기여하는 정도와 發展意志等을 포함하는 학생들의 政治的 能力에 대한 평가는 前者의 경우 37.5%, 後者의 경우 71%~75%(朴·74, 80-2) 등으로 실제적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民主的 發展을 위해 기여할 自信은 높게 가지고 있는 편이라 하겠다.

統一·安保問題에 대해서 60年代의 研究들은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70年代에 이루어진 研究들 중에는 이 문제를 취급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이들 연구만으로 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의 변화를 정확히 分析하기에는 미흡하다하겠으나 南北韓對話가 시작된 72年 전후를 비교해 보면 統一方式과 統一展望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對話以後에는 남북한간의 대화·협상에 의한 平和統一可能性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신념(37%)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밖의 이념절충, 中立化, 外勢仲介, 무력행사등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肯定的 反應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며(朴·70), 對話直後에도 이념절충 내지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통일희망에 대한 肯定的 反應이 높았으나(朴·74), 70年代의 중반부터는 우리의 이념과 체제에 의한 統一(71.6% : 金·76, 74% : 朴·80-2)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統一展望과 統一意志에서는 大學生 集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悲觀的이고 否定的(27% : 朴·80-1)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통일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고 통일의지도 약하면서도 南北韓間의 對話와 交流는 계속해야한다는 견해가 支配的이다(81.45~83.36% : 宋·84). 國家安保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견해는 70年代初(3.61 : 黃·74)나 최근(67.1% : 宋·84)에와서나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의 安保姿勢를 우려하는 경향은 다른 어느 集團보다 大學生 集團에서 높으며 安保에 대한 自信感에 대해서는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朴·80-1.2).

國際關係와 外交, 그리고 對外國觀에 대해서도 여러 研究들이 취급하고 있으나 設問紙 問項의 一貫性 缺如로 體係的인 分析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지를 간추려 보면 理念보다 實利追求를 위한 국제관계를 優先하는 경향이 높고 事大主義를 경계하며(3.53 : 黃 · 74, 74. 62% : 宋 · 84),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어 향시 그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비교적 높다.(43% : 朴 · 80-1). 그리고 經濟的인 이유로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否定的으로 보는(2.80) 反面에 國防을 위한 外國에의 의존은 肯定的으로 보는(3.60 : 黃黃 · 74)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實利를 위해서 소련과 中共을 포함한 共產國家와도 관계개선을 바라는 경향(67~78%)이 높다. 그리고 美國에 대한 信賴性이 學生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否 · 60% : 朴 · 80-1) 주목을 끌게 한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移民에 관한 것으로 移民에 대한 호의적인 성향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며(19.6% : 李 · 77, 32% : 朴 · 80-1), 外國生活을 희망하는 정도(84% : 金 · 79)는 學生 集團이 가장 높고 학생 스스로 移民을 희망하는 경향(22% : 朴 · 78)은 낮은 편이다.

## (2) 經濟的 價值意識

經濟問題의 認識에 대해서는 60年代의 研究들은 거의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70年代에 실시된 몇 편의 研究들이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60年代初까지의 學生의 관심과 學者들의 研究關心이 경제문제에는 적었던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을 간접적이기는 하나 立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60年代初와 80年代初의 두 研究結果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60年代初의 경우 「經濟的 生活의 安定」보다 「人格陶冶」를 83%의 학생들이 더욱 중요시하고 있었으나(金 · 63) 최근에 와서는 「인격도야」(5.2%)보다 「생애준비」(37.4%)를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朴 · 83).

이렇게 實利的인 經濟的 價值에 개인적으로나 國家的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70年代에 시작된 이른 바 高度의 經濟成長期에 와서이며 經濟問題의 認識에 관한 研究關心도 이 시기에 높아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70年代에 와서 시도된 조사연구들이 주로 취급한 經濟制度, 政策, 實況과 職業, 노사관계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평가, 기대등의 意識性向을 개관하면서 극히 부분적으로만 그 의식의 변화 양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經濟制度와 政策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평가는 否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經濟制度를 肯定的으로 인식·평가하는 정도로 14%에 불과하고 否定的으로 인식하고 경향은 56%에 달한다. (그리고 經濟政策에 대한 부정적 비판도 大學生 集團에서 가장 높고 (66.52%) 經濟發展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이다(全體的 否定度·19% : 學生의 否定度·39% : 朴·80-1). 그리고 貧富隔差의 심각성에 대한 認識은 70年代初까지만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때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第1位로 꼽은 것은 「정치·사회 불안」이 였으며 「빈부격차」는 3위(19.9% : 朴·74)정도 였고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10년에 비하여(2.39 : 黃·74), 최근에 와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63.51% : 朴·84). 그러나 貧困의 責任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보다 個人에 있음(49% : 金·76, 53% : 朴·80-1)을 다른 어느 集團보다 大學集團이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的 發展의 전망에 대해서는 國民의一般的 見解와 같이 大學生 集團은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83% : 朴·80-1), 학생의 社會的上昇과 生活向上을 낙관시하는 견해(75.4% : 金·76)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勞使關係에 관한 의식은 10여년 사이에 크게 변화되고 있다. 70年代初까지는 労使關係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사분쟁이 기업발전의 암적 존재(3.38 : 黃·74)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노동자의 권리보호(1.79)와 복지향상(1.97 : 黃·74)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최근에 와서도 노동자의 권리보호(88.10%)와 복지향상(83.48% : 宋·84)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職業觀 中에 직업선택 경향은 地位와 安定을 보장하는 이른바 전문직(예 : 학자, 교수 및 법조계 : 金·76) 선호도가 높게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기업등 經濟力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며 더욱기 직업에 대한 편견이 타파되어야 한다는 주장(1.83 : 黃·74, 91.48% : 宋·84)이 10年前에 비하여 크게 높아지고 현실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한다는 주장(2.25 : 黃·74, 64.32% : 宋·84)도 최근에 와서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보아 名分과 地位보다 實利的 經濟價值를 인식하고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社會的 價值意識

社會領域에 포함시키기로한 家庭, 道德·倫理, 秩序·統制, 傳統·外來, 人

間關係, 계층, 이동등 범주의 다양한項目에 대한 의식성향을 조사한 研究는 여러편이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간결하게 分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家庭, 道德, 倫理, 人間關係등을 포함하여 「傳統的 價値意識의 변화 양상」으로 일괄해서 分析하기로하고 질서와 통제, 계층문제를 별도로 취급하기로 한다.

傳統的 價値意識이 과거 40여년간에 걸쳐 크게 변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조사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러 생활 영역에 걸쳐 일정치 않은 상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어느 영역의 경우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의식이支配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世代와 특히 大學生 世代에支配的인 가치의식의 양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좋을 것이다.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애착(64.5% : 朴 · 80-1) 核家族化의 反對(84.25% : 宋 · 84), 가족과 친척의 화목 · 孝 · 子息된 道理 · 祖上崇拜등의 이유로 祭祀 贊成(56% : 洪 · 63), 孝道(90.5% : 金 · 64), 老父母奉養(94% : 金 · 79) 孝道의 계승(94.2% : 朴 · 80-1)등에서 높은肯定的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家庭生活과 家族關係의 전통적 가치의식이 비교적 높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家族主義의 傳統에서 가장 중핵을 이루는 孝道의 價値는 60年代와 70年代初(2.11 : 黃 · 74)에 비하여 최근(94.2% : 朴 · 80-1)에 와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결혼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父母와 상의해서 결정하고자하는 경향도 60年代(47.3% : 金 · 64)보다 최근(65.45% : 朴 · 80-1)에 와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父母命令에의 복종과 지나친 의존성에서 벗어나 自律性, 獨立性을 강조하는 점이나 男女平等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洪 · 63, 金 · 64, 朴 · 80-1, 宋 · 84)은 전통적 가치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할 것이다. 더욱기 전통적인 結婚觀, 親族觀, 人間關係觀등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욱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으면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적지 않는 정도의 갈등을 빚게하고 있다하겠다.

傳統的 價値意識이 최근에 와서 일부 생활영역에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外來文化와 倫理의 受容過程에 대한 反省과 批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外來風潮에 대한 批判意識이 70年代初에 고조되기 시작하여(外來否定 : 1.65, 傳統肯定 : 3.58 : 黃 · 74), 70年代末과 80年代에 와서는 傳統倫理가 西洋倫理보다 우수하다고肯定的反應(62% : 朴 · 80-2 · 67.88% : 宋 · 84)이 더욱 높

아지게 되고 傳統文化의 계승과 그 바탕위에 近代化의 추진을 바라는 경향(83.5% : 朴. 80-1)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傳統文化와 倫理 中 權威主義的要素와 非合理的 要素에 대해서는 否定的이며 批判的인 견해가 높다는 사실(54.9%, 67.6% : 朴. 80-1)과 기존의 사고 및 행동양식을 시대 변동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는 改善意志(81.92% : 宋 · 84) 또한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生活樣式이 변화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傳統的 規範은 약화되고, 새로운 秩序와 社會統制樣式이 요구되며 준법의식이 강조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따른 학생들의 意識性向은 비교적肯定的이며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自由보다 社會秩序를 우선시(64.8%)하며, 統制의 必要性(60.6% : 朴 · 80-1), 준법정신의 필요성(84.26% : 宋 · 84) 등에도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法適用의 公正性과 준법정신의 평가에 대해서도 否定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良心과 法에 따른 행동이 손해를 보게된다는 견해(53.6%, 58.42% : 宋 · 84)가 높아 실제적 준법의식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에 지배적인 적당주의와 요령주의가 학생들에게 전승될 가능성마저 있다하겠다.

60年代末부터 시작된 高度經濟成長期에 와서 社會階層分化와 移動이 촉진되고 社會의 上昇意慾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能力과 業績이 높이 평가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대한肯定的 受容度는 대학생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이나 계층이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79.20% : 朴 · 80-2)가 지배적이며 民主社會에서의 계층분화는 불가피하다(65.62% : 宋 · 84)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能力과 努力에 의한 대우차이에 대해서 대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욱肯定的 反應(53.72% : 朴 · 80-1)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 人間的待遇, 能力主義에 대해서는 다른 集團보다 大學生 集團이 더욱 否定的인 性向을 높게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問項에 대해서 근로청년의 80.18%가 찬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大學生은 58.28%만이 찬성하고 있으며(朴 · 80-2), 能力主義에 대해서도 否定的 性向(73.97~80.09% : 宋 · 84)이 아주 높고 能力보다 人格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며 人間的 待遇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은 否定的 性向(52% : 朴 · 80-1)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近代的 社會意識과 傳統的 價值意識의 混在現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一般的 價値意識

政治·經濟·社會등의 영역에 포함시켜 취급하지 못한 것이면서도 基本的인 價値性向이라 볼 수 있는 人格·幸福·生의 目標 등을 포함하는 人生觀과 自由·平等·個人·集團·保守·進步등에 대한 학생들의 意識성향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大學生의 價値意識에 관한 研究들은 주로 정치·경제·사회·가정등 생활 영역별로 조사하고 있어 여기서 취급하고자 하는 價値德目別로 조사·연구된 결과는 극히 적다. 그러나 몇편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모아 정리해서 일반적인 가치의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大學生은 흔히 理想主義의 면에서 理想과 現實간에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경향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人格陶冶와 교양에 대한 가치의식은 60年代初에 비하여 최근에 와서는 다소 낮아지면서 비교적 實用主義내지 實利的 價値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 삶의 幸福도 삶의 주위에서 얻는 사소한 즐거움의 연속(77.05% : 宋 · 84)으로 생각하며, 생의 가장 큰 즐거움도 가정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이고(5개 영역 중 가정생활에 36.8% : 金 · 76) 生의 目標도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에 60.8%의 학생이 찬성하는 경향(金 · 79)으로 보아 集團主義의이고 自我實現의 價値性向으로 크게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集團 특히 근로청년 집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게 한다. 그러나 個人的 價値보다 국가·사회의 價値를 우선해야한다고 견해(60% : 朴 · 80-2, 個人優先 : 21.5% : 한국갤럽 · 84)가 아직은 지배적이고 個人的 自由보다 사회질서를 우선시(67.68% : 朴 · 80-2)하는 경향도 높으면서 個人的 權利主張(68.9% : 한국갤럽 · 84)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의식은 獨立과 依存, 自由와 平等, 保守와 進步내지 急進등의 가치의식에도 나타나고 있다.

依存보다 獨立의 價値를 강조하는 경향(69%~8.7% : 한국갤럽 · 84)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은 학비를 부모형제에 의존(80~90% : 朴 · 70)하고 있으며 중대한 문제 해결에 對立이 있을 경우 부모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24.5% : 한국갤럽 · 84)도 상당한 정도로 계속되고 결혼문제에 대한 父母의 反對가 있을 경우 再考하려는 경향(65.45% : 宋 · 84)은 아주

높은 편으로서 아직은 獨立과 依存의 混在現象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갈등마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獨立性의 강조는 自由의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個人的 自由보다 社會秩序를 우선시(61.76% : 朴 · 80-2)하고 나아가 대다수의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自由를 존중한다고 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용납할 수 없다(90.88% : 宋 · 84)고 인식하는 경향과 自由統制의 필요성(60.5% : 朴 · 80-1)에 대한 인식의 정도등으로 보아 自由制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높다하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좀더 분석해 보면 自由와 統制간과 특히 自由와 平等간에 혼돈과 갈등의식이 적지 않은 수준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個人自由의 制限과 社會秩序 優先에 찬성하는 대학생은 같은 年令層의 勉學青年보다 낮으며(61.76%對 76.73%)大學生 中에는 學年이 높을수록 그 肯定度가 낮아(1學年 : 68%, 2學年 : 63%, 3學年 : 50.8%, 4學年 : 45.56%, 朴 · 80-2)지며 4學年の 경우 自由쪽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自由의 신장과 平等社會의 건설은 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는 학생이 각각 23%로 나누어지는 경향(金 · 76)과 富의 균등한 分配를 理想視하는 경향(26.72% : 朴 · 80-2), 그리고 人權과 秩序(21% : 19%), 自由와 平等(9.4% : 9.1%, 金 · 76)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요시하는 경향들은 價值意識의 혼돈과 갈등상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安定과 變化, 保守, 進步, 急進등에 대해서도 혼돈된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急進的 變化보다 安定指向性(40.5% : 46.88%, 朴 · 80-2)찬성하는 경향이 다소 높기는 하나 急進에 기울어지는 경향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공산주의 이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61% : 朴 · 80-1, 74.89% : 朴 · 80-2)과 平等社會建設을 위한 운동에 찬성하는 경향(26.47% : 朴 · 80-2), 사회부조리를 없애고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75%, 61.62% : 朴 : 80-2)을肯定하는 경향, 또는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外國文物의 과감한 수용(51.68% : 宋 · 84)을 긍정하는 경향등 급진적 변화를肯定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 進步, 急進 등 性向과는 달리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傳統의 文化와 도덕 · 윤리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民族主體性의 신장등에 높은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어 兩者間의 혼동과 갈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綜合評價와 課題

政治·經濟·社會·一般등으로 분류된 大學生 價值意識의 변화와 최근의 양상을 20여년전에 걸쳐 실시된 調査研究結果를 토대로하여 分析하려 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시도함에 있어,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研究結果에 충실하고 主觀的인 解釋을 삼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研究結果들을 종합·정리하지도 못하면서 산만한 제시로 끝나게 되었으며 研究들이 취급하지 못한 중요한 가치의식을除外하는 결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간략하게 綜合評價하면서 앞으로의 課題를 예시하고자 한다.

綜合·評價를 위한 별도의 觀點이나 基準을 설정·제시하지 못하고 一般化된 그러나 主觀的인 期待水準에 따라 앞서 분석·제시한 대학생의 가치의식과 그 밖의 것을 포함하여 肯定的, 否定的, 兩面 내지 二重의 價值意識등으로 분류, 제시하고 主觀的인 해석과 평가를 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主觀的解説과 評價는 論難의 여지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토의에서 批判이 있어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肯定的 價值意識：**大學生의 價值意識 중에도 비교적 견천하여 이들 가치의식이 지속되고 신장되는 한 그들과 나라의 장래를 낙관시해서 좋을 것으로 肯定的評價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個人보다 國家, 社會의 優先, 國가발전에의 기여 의지, 歷史·民族·文化·한국인·國토·國家·국기 등에 대한 긍지,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에 대한 肯定的 價值賦與, 傳統文化와 倫理의 계승·발전, 人間價值의 존중, 民主的 發展과 經濟發展의 自信, 우리의 理念과 體制에 의한 平和的 統一希望, 남북한 對話와 交流의 지속과 확대, 事大主義 排擊, 能動性, 進取性, 參與性, 正義感, 改革意志 등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肯定的 性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否定的 價值意識：**大學生의 價值意識 중 期待水準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려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國家理念에 대한 이해와 信念不足, 實現否定的 性向, 利己的 個人主義 性向, 기회주의 및 優勝주의 성향, 創意性결여, 준법우선의 부족 民主的 問題解決方式과 態度결여 急進主義 性向, 反抗的 性向, 統一·安保意識의 不足, 國家를 위한 희생정신 미흡, 정부·국회·정당·

지도자등에 대한 不信, 自我正體意識의 미흡, 소외·불안·갈등의식등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성향들이며 이들 의식성향이 지속되는 경우 그들과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게 된다.

兩面的·二重的 價値意識：앞서 분류, 지적한 肯定·否定의 가치의식 성향도 程度의 差異로서 규정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이 支配的인 가치성향이라 할 수 없으며 양면을 동시에 갖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히 두드러지게兩面的 的 내지 二重的 價値性向으로 혼돈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가치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依存性과 獨立性, 他律性과 自律性, 理想과 現實, 名分과 實利, 傳統性과 近代性, 自由와 平等, 急進性과 同調性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大學生의 價値意識性向을 셋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論難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 例示로서 먼저 大學生의 國家觀을 들어보기로 한다. 個人보다 國家·社會의 優先, 國가에의 기여 意志, 歷史·民族·文化·國土에 대한 긍지등에 대해서 여러 편의 最近 研究들은 60~86%의 大學生들이 肯定的 反應을 보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時期를 달리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肯定度가 최근에 와서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높은 肯定度와 그 긍정도의 向上으로 보아 여기서는 肯定的 價値意識性向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主觀的 評價와 分類에 異見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의 民族·國家觀을 조사한 研究(李·77)에서 대부분의 問項에 50~75%의 학생들이 肯定的으로 反應하고 17~34%의 學生이 否定的으로 反應한 결과를 얻어 그들과 나라의 장래를 극히 우려하고 悲觀視하는 해석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같이 期待水準과 主觀的인 基準에 따라서는 같은 현상과 결과를 肯定 또는 否定, 悲觀 또는 樂觀 등으로 해석, 평가할 수도 있게된다.

여러 研究結果들을 綜合해서 分析해보면 大學生의 國家觀과 現實觀에 문제 가 없는 것은 아니다. 國家觀에 관한 大學生의 肯定度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같은 대학생의 肯定度는 一般 國民과 下級學校 學生의 것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現實觀에 있어서는 더욱 낮거나 否定的 性向이 더욱 높은 경향을 띠게 되는 점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否定的 性向이 비록 大學時期에 나타나는 一時的인 現象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原因糾明과 改善을 위한 研究와 創意的 努力이 있어야 할 중요함 앞으로의 課題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기 國家社會에 대한 信念과 國家를 위한

희생정신이 극히 약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現實을 否定的으로 보는 경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연구와 교육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兩面 내지 二重的 價值意識性向이 높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二重的 價值意識에 분류·제시한 가치 덕목들은 어느 하나만을 絶對視하거나 어느 한 쪽으로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서로 調和를 이루어야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學生들은 그러한 調和의 能力を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처하는 狀況과 그들의 要求에 따라 兩面의 어느한쪽으로 一時기울어지는 모순과 갈등을 겪게된다. 이러한 二重的 價值意識은 自我觀의 確立을 어렵게 하고(朴·83)理念과 現實을 否定的으로 보게하며 나아가 知的으로 방황하게 하며 反抗과 공격적 성향을 띠게 한다. 앞서 지적한 大學生에支配의 現實 否定的 意識性向과 言行不一致, 그리고 主張들 간의 모순 등을 이러한 이중적 가치의식성향으로 빚어지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의식과 행의 양식을 家庭, 學校, 社會, 政治 등 모든 생활영역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대립 양상을 빚게하고 있으며 중요한 社會問題의 發生 原因으로까지 작용하는 예도 없지 않다.

相互矛盾되고 갈등관계에 있는 兩價值들을 調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갈구하는 과제는 중요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課題이다. 더우기 우리는 社會生活의 全領域에 걸쳐 아직 二重的 價值構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 놓여 있기 때문에 大學生만에 국한하여 二重的 價值意識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大學社會에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해결은 요원해질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이것을 大學의 一次的 課題로 삼아 좋을 것이다.

이같은 二重的 價值意識의 문제를 포함하여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다소 결여되고 미흡하다고 評價하면서 앞으로 더욱 育成되어야 할 것으로 期待하고 가치성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육성을 위한 課題에 대해서 言及해 두고자 한다.

우리가 期待하는 가치 덕목은 수없이 많다. 실상 初·中·高校까지의 학생에게 기대하는 가치 덕목은 教科書에 反映된 것만도 50여가지나 된다. 그들 중에는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만을 지적하면, 誠實, 創意, 進取, 責任(個人的 次元), 경애, 신뢰, 협동, 질서, 준법, 문제의 民主的 解決態度(社會的 次元), 國家理念에 대한 信念, 애국, 애족, 호국 統一意志(國家的 次元)등이다.

大學生들의 肯定的 價值意識중 능동성, 독립성, 참여성,改革性등은 성실성, 창의성, 책임성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일, 不正, 否定, 반항 등으로 흐르

게될 위험성이 있게된다. 그리고 民主主義와 관련된 自由와 平等만의 강조는 그보다 더 上位 價值인 人間의 존엄성과 개성존중, 相互敬愛, 신뢰, 협동을 해치게되며 문제의 민주적 해결은 어렵게 한다. 이렇게 모든 價值들은 相對的의 의미를 지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성격의 것으로 그 관련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들 가치들이 구현되어야 하는 優先順位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50여개에 달하는 價值·德目들을 初·中·高校까지의 12年間에 걸쳐 반복하여 學習하게 된 學生들은 그 개별적 가치·덕목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그들 가치·덕목들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더욱이 그들이 직면하는 實生活場인 家庭과 學校, 그리고 각종 社會關係에서 실시되는 訓育과 規則의 운영에 一貫性이 없는 상황에서 모순된 가치의식을 경험하게 되어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價值觀의 混難」이라는 말도 가치·덕목들간의 관련성과 그 우선 순위를 알지 못하고 변별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며, 學者들이 흔히 강조하는 「價值觀의 確立」과 「價值觀의 體系化」라는 것도 가치·덕목등의 관련성과 그 優先順位를 규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계속적인 研究를 요하는 것이며 또한 가치·덕목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相互矛盾되는 가치들을 調和시킬 수 있는 能力を 육성하는 일 또한 高度의 修練을 요구하는 일로서 이들은 모두 앞으로의 중요한 研究와 教育의 課題들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金榮國(外)

1976 青少年의 價值觀과 政治意識,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政治學科.

金有進(外)

1979 青少年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報告書, 青少年問題研究所.

金泰吉

1964 韓國大學生의 價值觀, 서울:一潮閣.

朴準國(外)

1978 “韓國大學生의 意識構造 研究”, 統一論叢 第1輯別冊, 釜山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朴容憲(外)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朴容憲

1974 青少年의 政治思想意識構造分析, 國土統一院

朴容憲

1980 “現代 韓國人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思想論叢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朴容憲(外)

1983 “大學教育文化에 관한 探索的 研究”, 教育研究院 83-3,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研究所,

宋錫祐

1984 “大學生의 價值觀 調査研究”, 教育學研究, 22권1호, 韓國教育學會.

李珪範(外)

1973 “各級學校學生들의 國家意識에 관한 研究”, 釜山教育大學

李永鎬

1977 “韓國人の 民族意識”, 國際政治論叢, 第17輯, 韓國國際 政治學會.

鄭良殷(外)

1966 “大學生의 社會參與問題”, 學生研究 4권1호,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洪大植(外)

1976 “韓國學生의 國家觀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報告 第 48輯.

洪承稷

1963 “韓國大學生의 價值觀,” 亞細亞研究 11卷,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洪承稷

1977 “韓國人の 安保意識—大學生의 指導層에 대한 態度를 中心으로 一, 亞細亞研究, 20卷1號, 通卷57號,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黃應淵

1974 大學生의 價值觀 및 관련된 變因에 관한 研究, 서울: 益文社.

한국갤럽

1984 “韓國 青少年의 意識構造” 韓國人の 與論시리즈15, 한국갤럽조사연구소.